북스

Books

모네·르누아르도 '살롱' 낙선자였다

아틀리에의 비밀 나데주 라네리 다장 지음

이탈리아 화가 치마부에(Cimabue·1240~1302)는 피렌체파 회화의 창시자 조토(Giotto di Bondone·1266~1337)를 발굴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피렌체 우피치미술관의 '성삼위일체의 성모', 산타크로체 성당의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 등 작품들은 그의 작품인 것으로 '인정'될 뿐 확인이 불가능하다.

대작을 남긴 유명 화가치고는 '대접'이 영 시원찮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보테가'(Bottega·도제가 스승에게 기술을 배우는 공방) 방식이던 13~14세기 미술가들의 생활을 알고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한 아틀리에에 도제를 포함한 수십명의 작업 인원이 있었고, 주문 생산을 했기 때문에 굳이 누구의 작품인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공방→조합→아카데미→살롱 화가들 작업실 통해 본 미술사

파리국립미술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나데주 라네리 다장의 '아틀리에의 비밀'은 수공업자 취급을 받았던 중세·르네상스 시대의 공방에서 지적 욕구로 충만했던 17~18세기 미술가들의 미술아카데미, '살롱'을 위해 19세기 화가들이 찾았던 대가의 아틀리에, 개성 만점인 현대 화가들의 개인 작업실에 이르기까지 화가의 작업실을 통해 본 미술사 이야기다.

저자는 유럽의 대성당을 차지하고 있는 조각, 스테인드 글라스, 벽화 등 훌륭한 미술품들은 누가, 왜, 어떻게 생산됐는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제시한다. 현대의 미술가들이 예술가로 누리는 지금의 위치를 얻기 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공방에서 주로 작품이 생산됐던 15세기까지 미술가들은 고객의 주문에 맞게 작품을 만드는 단순 노동자 수준이었다. 심지어 작품에 드는 재료, 등장하는 사람의 숫자 등 세세한 것까지도 지시대로 해야만 했다. 16세기 들어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천재의 등장과 함께 미술가의 목소리도 커지는 변화가 생긴다.

미셸 우아스 작 '데생 아카데미'(1715년). 아카데미의 출현은 미술 교육 이론의 발전과 대중의 기호를 파악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의 벽화를 그릴 때 '고객'인 교황 율리우스 2세와 벌인 싸움이 좋은 사례다. 성당 안에서 혼자 작업하기를 원했던 미켈란젤로는 절대 권력 교황에게도 자신의 작업 현장을 보여주지 않는 고집을 보였던 것이다. 천재들의 반란이 전체적인 미술품 생산 방식을 바꾸진 못했다. 16세기에도 여전히 조합이 존재했고, 도제 방식이 유효했다.

1648년 파리에 설립된 왕립 회화·조각 아카데미는 미술가들에게 혁명적인 것이었다. 아카데미는 17세기 루벤스나 푸생 등 부르주아 계급의 미술가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었다. 19세기 프랑스에 등장한 '살롱'은 현대 전시회의 효시로, 미술 산업과 비평을 잉태했다. 모네, 르누아르, 세잔 등 인상파 화가들이 '살롱'의 낙선자였다는 사실은 재미있는 일화로 남아있다.

'미술가들의 서가', '중세미술의 '색깔'들', '미술가와 출판물' 등 책의 중간중간에 배치된 '상자글'은 읽는 재미를 더한다. 〈아트북스·1만8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고문헌속 우리의 고전음악

홀로 앉아 금(琴)을 타고 이지양 지음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공부'와 '향유'로서 음악을 대했다. 조선조 때는 예(禮)와 악(樂)을 통해 유교의 이상을 실현하려했다. 선조들에게 음악은 개인의 인격도야는 물론 통치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삶과 불가분의 관계였다.

한문학자 이지양(부산대학교 인문학 연구소장)씨의 '홀로 앉아 금을 타고-옛글 속의 우리 음악 이야기'는 옛 문헌에 등장하는 전통 음악의 주제와 소재, 악공, 선비들의 삶을 통해 우리 고전음악의 뿌리를 추적하는 책이다.

저자는 딱딱할 수도 있는 고전음악의 세계로 독자를 이끌기 위해 에세이 형식의 문장을 택했다. '그녀와 놀고 싶은 봄날의 꿈, 춘면곡'에서는 연예인을 기다리는 10대들을 모습에 견주어 기생을 기다리던 앳된 서생(書生)의 모습을 그린 것이 춘면곡의 줄거리라고 설명한다.

이 책에서는 이름만 전해질 뿐 곡의 배경과 내용을 알기 어려웠던 옛 음악들도 소개된다. 피리소리가 바다에서 용이 헤엄치면서 휘파람을 부는 소리 같다고 해 이름지은 '수룡음', '황하가 천년에 한 번 맑아진다'는 의미에서 나온 '황하청' 등 옛 노래들의 연원과 역사가 등장한다.

저자의 체험이 글의 곳곳에 녹아있는 것도 읽는 즐거움을 준다. 저자는 모친의 고향을 찾아가 "엄마 생전에 이곳에 며칠 묵으며…처녀시절 얘기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후회하며 '회심곡'의 한 곡조를 슬며시 들려준다.

뛰어난 솜씨로 듣는 이들을 매료시켰던 예인들도 등장한다. 관청의 노비에서 거문고를 배운 뒤 악공으로 변신한 김성기,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해금을 연주했던 유우춘 등 악사들의 흥미로운 삶이 펼쳐진다.

김홍도의 '포의풍류도'

노래를 음미할 줄 알았던 선비들도 소개된다. 연암 박지원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겨울 달빛 아래서 벗들과 거문고를 즐겼던 이야기를 '다시는 그런 운치있는 일이 없었다'는 아쉬움으로 표현했다.

저자는 "이 책이 우리 조상들의 음악 향유문화에 스민 정신세계와 미의식, 그리고 실생활의 향유 현장을 마음으로 느끼게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샘터·1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대로 미친 여자들

女멘토 9명 인터뷰 책

도발적인 제목이다. '미친년-여자로 태어나 미친년으로 진화하다'는 저널리스트 이명희씨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국내·외 여성 멘토 9명의 인터뷰를 담은 책이다.

여성문화운동 1세대인 사진작가 박영숙, 실리콘밸리의 작은 거인 CEO 김태연, '버자이너 모놀로그'의 극작가 이브 엔슬러, 신학자이자 평화운동가인 현경 등에게 저자는 '미친년'이란 칭호를 부여한다.

그들은 "여자로 태어나 '미친년' 소리를 듣는다는 건 자신의 길을 열심히 살아왔다는 진화의 증거"이며 "어차피 '미친년' 소리를 들을 바에야, 제대로 미쳐보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역설한다. 〈열림원·1만1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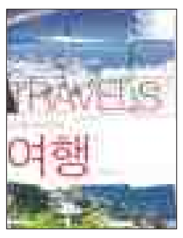
▲고독한 한국인=논객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앞만 보고 달리는 한국인'의 쓸쓸한 자화상을 그렸다. 저자가 그동안 '한겨레21', '한국일보', '인물과 사상' 등에 연재했던 글 중에서 골라 실었다. 대중·정치·대통령·문인·지방의 고독을 다루고 있다. 〈인물과사상사·1만2천원〉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스티븐 핑커가 '사람의 마음'을 분석했다. 마음의 정의에서 다양한 쓰임새까지 신경과학, 경제학, 사회심리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통찰을 통해 들여다본다. 저자는 매일 경험하는 사소한 사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마음'을 파헤친다. 〈소스·4만원〉

▲우리동네 소리꾼을 찾아라=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구전민요가 악보까지 갖춘 한 권의 책으로 태어났다. 광주MBC '신(新)얼씨구학당'의 윤행석PD는 광주·전남 구석구석에서 발굴한 '재야' 소리꾼 28명의 이야기를 글로 풀었다. 〈전라도닷컴·1만5천원〉

▲대장부의 삶=조선시대 선비들의 편지를 묶은 책. '사내 대장부'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갖춰야 할 것은 더 많은 '완벽한 남자'로 인식된다. 하지만 편지를 통해 본 그들은 평범한 아버지 또는 아들이었고, 세파에 힘들어하는 남자였다. 〈역사의아침·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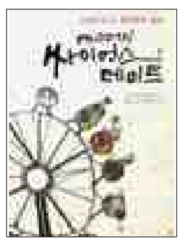
▲죽음의 지대=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8천미터 14좌를 완등(完登)한 이탈리아인 라인홀트 메스너가 등산가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산에 오르는 이유에 대해 말한다. 제목 '죽음의 지대'는 7천500미터 이상의 고산 지대를 뜻한다. 심리학, 철학까지 아우르며 산악문학의 경계를 허문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문화·1만1천원〉



▲마이클 크라이튼의 여행='쥬라기 공원'의 저자 마이클 크라이튼의 에세이. 1부는 저자가 하버드 의과대학에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다. 2부는 세계 각지로 여행을 다니면서 체험한 것이, 3부에는 영적 체험을 통한 정신적 여행 이야기가 담겨 있다. 〈터치아트·1만3천500원〉

▲눈뜬 자들의 도시=포르투칼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주제 사마라구의 장편소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지방선거에서 83%의 백지표가 나온다는 다소 황당한 설정으로 권력의 우매함과 민주주의 제도의 허점을 신랄하게 꼬집은 블랙 코미디다. 〈해냄·1만1천원〉

▲길가메시=지난 2005년 수메르의 건국 이야기를 다룬 소설 '수메리안'을 펴낸 윤정모씨가 이번에는 수메르의 도시국가 우르크를 통치한 길가메시(우르크 1왕조 5대왕)의 일생을 다뤘다. 신화로 남고 싶었지만 죽음과 처절히 싸워야 했던 '인간' 길가메시의 고뇌가 그려진다. 〈파미르·1만원〉



▲에스더의 싸이언스 데이트(전 2권)=문학성과 정보를 동시에 담고 있는 교양물리학 소설. 15세 소녀 에스더가 어느 날 수스 고모로부터 아인슈타인의 사진 한 장을 선물받는다. 에스더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닐스 아저씨와의 대화를 통해 상대성 이론 등을 이해하고 지적 호기심을 해결한다. 〈예가람·1만4천500원〉